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Parental Satisfaction of Korean Parents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조복희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현온강

Dept. of Housing, Family & Child Studies, Kyunghee Univ.

prof. : Cho, Bok Hee

Dept. of Home Management, Inha Univ.

prof. : Hyun, On Kang

〈목 차〉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의 고찰	V. 결 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parents' parental satisfaction in Korea. Subjects, who were selected nationwide, consisted of 1237 parents with children of the kindergarten and primary school.

Parental Satisfaction Scale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ed variables pertaining to parental satisfaction. The results yielded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period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was too short. The mean interval between marriage and first child birth was 14.4 months.

2) Whereas fathers experienced greater parental role fulfillment than mother did, mothers' employment status was not correlated with parental satisfaction.

3) Number and gender of the child and parent's educational attainment were related to parental satisfaction. However, age at parental onset was not found as the related variable.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결혼한 부부는 대부분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부모라는 사회적 위치에 서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역할을 하게 된다. 인위적 방법으로 출산통제가 가능하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은 비용과 이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사항이 될 수 있다 (Bigner, 1985). 즉 자녀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자녀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모의 의사결정에 개입될 수 있다.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성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의 주요요인이 되며 부모로서의 정서적 만족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치려야할 경제적 부담, 자유의 박탈, 훈육에 어려움을 상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Guidubaldi & Cleminshaw, 1989).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간주되므로 특별히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부모역할 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은 무엇이며 부모로서 경험하는 갈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모로서의 만족감이 부모의 실제적인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당연시 여겨지면서도 자녀양육행동의 선행변수인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현은강, 조복희, 1994). 지금까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역할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시도된 연구(원정선, 1990; 이해란, 1984)와 고령 출산모집단과 20대 출산모 집단의 부모역할만족도 비교연구(강희경, 1994)만이 있을 뿐이고, 그 대상에 있어서 자녀의 연령이 생후 3년이 내로 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부모역할만족에 미치는 제반 변수의 영향력을 밝히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후 부모로의 전환시기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요인들이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분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 후 부모가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부·모간 부모역할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연령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취업은 부모됨과 역할만족도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5〉 자녀수, 아들의 유무, 자녀의 성별구성, 양육경험년수에 따라 부모역할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의 고찰

1. 부모기의 전환 준비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가족체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오고 부부에게는 부모라는 새로운 지위가 부여된다. 이러한 가족체계의 변화는 역할의 전이를 의미하며 전이를 통해 개인은 심리적 부담을 지게 된다.

개인은 일생을 통해 변화를 조금씩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 생활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이 부부의 의사결정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아이를 갖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첫 자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것은 부부의 순수한 자발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압력이 크다고 하겠다. 심리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부부가 부모가 되어서는 당연히 많은 어려움과 직면할 것이다. 더구나 혼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부모기의 전환준비는 결혼 후 자녀출산 까지로 볼 수 있다. 결혼과 첫자녀출산 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밝힌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으며 다만 인구학적인 배경으로 부수적으로 얻은 자료가 있을 뿐이다(여성

개발원, 1993). 그러나 이 자료도 결혼년령과 첫자녀 출산년령을 물어 얻어진 결과이므로 신뢰로운 것이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임신기 자체가 1년 미만이므로 몇 개월 단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모기로의 진이에 대한 고선주·옥선화(1993)의 연구에서는 결혼부터 임신까지의 기간이 평균 8.7개월로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혼전임신이 7.2%, 결혼 후 5개월 이내에 52%, 1년이 지나면 73.7%가 임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면서도 임신은 부부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하며 부모기에 대한 준비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보겠다.

2. 부모 관련변수

性: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고 난 뒤 긍정적인 만족감은 부모의 성에 따라 다르다. Chilman(198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Hoffman과 Manis(197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밝히고 있어서, 부모의 성과 부모역할만족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Goetting(1986)은 부모역할만족도가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에 따라서 어머니됨과 아버지됨의 조작적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모가 역할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부모역할을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훨씬 더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Hamner & Turner, 1990). 부모됨의 어려움과 만족에 관한 국내연구(원정선, 1990)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부모됨에 따른 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효과도 서로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데, Chilman(1979)과 Steffensmeir(1982)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그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한 반면에, Guidubaldi 등(1989)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와 교육수준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가치가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는 자신의 가치를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로 둘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현은강, 1994).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는 부모역할은 긍정적으로 또는 반대로 낮은 가치를 두는 양극현상을 보인다고도 하였다(Hamner & Turner, 1990).

연령: 자신의 직업 지위가 안정될 때까지, 자녀 갖기를 연기시킨 아버지들은 부모됨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Goetting, 1986). 어머니의 경우에도, 연령과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agozin, Basham, Crnic, Greenberg & Robinson, 1982). 35세 이상에서 출산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강희경(1994)의 연구에서 고품출산모집단이 20대 출산모집단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의 성숙도가 역할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3. 어머니의 취업

비용과 보상과의 상호관련을 따르는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부모의 역할은 개인적 희생과 자원의 투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인적 가치, 즉 사적 자유, 자아실현, 독립적 생활, 경제적 성공에다 가치를 두는 취업 주부는 부모됨에 적은 만족을 부여할 것으로 본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에 따른 효과 역시 서로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즉,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도 있지만,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없다는 연구보고도 있다(Goetting, 1986, 재인용).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국내연구(강희경, 1994)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자녀 관련변수

자녀수: Nye 등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1자녀일 때 가장 높고, 4자녀가 될 때까지는 계속 하락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부모역

할만족도는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Goetting, 1986, 재인용). 자녀가 많으면 부모가 수행해야 할 역할 부담이 커져서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4명 이상이 되면 첫자녀가 자녀양육을 분담해줄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높은 가치를 둔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으므로 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예측한다.

자녀의 性: Lowenthal 등의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의 아버지들이 딸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지만(Goetting, 1986, 재인용), Chilman(1979)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만족의 차이가 없었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첫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경험년수는 첫자녀의 연령과 비례한다. 부모가 되고 난 뒤 초기 즉, 부모기의 전이기가 일어난 직후에는 부모됨의 어려움으로 인해 만족도와 불만족도가 함께 높으나 점차 양육기술이 익숙해지면서 만족도는 증가한다. 그러므로 자녀가 유아기에는 만족도가 높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8개도에서 인구비율을 고려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선정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농촌은 우리 나라 인

(표 1) 우리 나라 인구분포와 본 연구의 표집대상분포
단위 : 명 (%)

	본집단	우리나라 인구분포(1)
대 도시	421(34.0)	(41.5)
중소도시	608(49.2)	(42.2)
농 촌	208(16.8)	(16.3)
전 체	1237(100.0)	(100.0)

주 : 1) 내무부 (1993). 한국도시연감

구분포와 유사하게 표집되었으며 대도시가 적게 표

집된 대신 중소도시가 많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표집이 용이한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대도시의 비율을 조금 줄여 보았다.

본 연구의 조사는 1993년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유치원 및 국민학교를 통해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1400명에게 배부한 후 회수하여, 총 1237부(아버지 252부, 어머니 98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가 사용되었다. 「부모역할만족도」는 총 48분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각 분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의 4점 척도이다. 「부모역할만족도」는 일반적 만족, 부모-자녀 관계, 배우자의 지지, 부모역할갈등, 자녀의 지지 등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현온강, 조복희, 1994).

이외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변수를 묻는 5분항과 자녀관련 속담에 관한 분항 3분항도 함께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통계검증 방법으로는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변수 분석을 위해서 빈도분석이 사용되었고, 연구분체와 관련된 방법으로는 t검증, 변량분석, Scheffe의 사후검증이 이용되었다.

Ⅳ. 연구 결과

1. 부모됨

응답자의 부모됨의 연령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변수	내용	아버지집단	어머니집단	전체
연령	20대	5(2.0)	48(4.9)	53(4.3)
	30대	151(59.9)	817(82.9)	968(78.3)
	40대	85(33.7)	117(11.9)	202(16.3)
	50대이상	11(4.4)	3(0.3)	14(1.1)
	계	252(100.0)	985(100.0)	1237(100.0)2)
교육수준	중졸이하	21(8.4)	228(23.7)	249(20.5)
	고졸	103(41.4)	523(54.3)	626(51.7)
	대졸이상	125(50.2)	212(22.0)	337(27.8)
	계	249(100.0)	963(100.0)	1212(100.0)
직업	무직(주부)	6(2.4)	661(70.3)	667(56.3)
	기능.서비스직	25(10.2)	65(6.9)	90(7.6)
	자영업	44(17.9)	115(12.2)	159(13.4)
	회사원	82(33.3)	30(3.2)	112(9.4)
	전문.관리직	89(36.2)	69(7.3)	258(13.3)
	계	246(100.0)	940(100.0)	1186(100.0)
자녀수	1명	29(12.6)	91(27.3)	120(10.6)
	2명	171(74.0)	645(71.6)	816(72.1)
	3명이상	31(13.4)	165(18.3)	196(17.3)
	계	231(100.0)	901(100.0)	1132(100.0)

주 2) 무응답에 의해 각 변수의 사례 수는 차이가 있다.

〈표 3〉 부모됨의 연령과 기간

단위 : M(SD)

		부모됨의 연령(세)		부모됨의 기간(개월)	
		부	모	부	모
평균		28.3(2.5)	25.3(2.6)	15.0(16.2)	14.3(14.0)
지역	농촌	27.4(2.8)	23.9(2.5)	17.5(8.5)	15.4(18.2)
	중소도시	28.2(2.2)	25.5(2.5)	12.9(15.1)	13.5(11.5)
	대도시	28.9(3.3)	25.6(2.8)	21.4(21.1)	15.1(15.1)
학력	고졸이하	27.7(2.6)	24.9(2.6)	14.2(18.3)	14.0(14.2)
	대졸이상	28.8(2.4)	26.6(2.3)	15.8(14.0)	15.1(13.2)

부모됨의 연령은 농촌이 낮았고 중·소·대도시는 비슷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다. 이것은 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결혼이나 출산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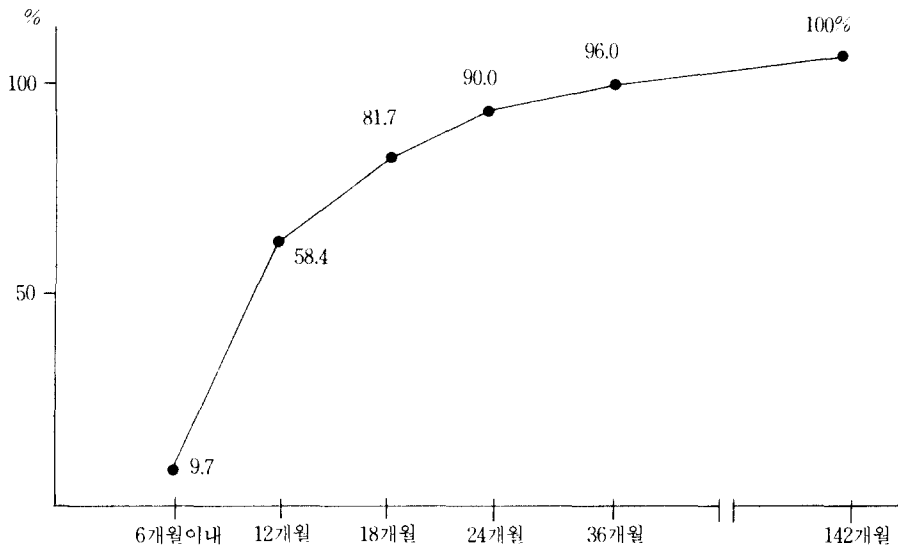
부모됨의 기간은 평균 14.4개월이었다. 1개월 단위로 부모됨의 기간을 분석하였더니 만 9개월과 10개

월에 부모가 된 응답자가 각각 12.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결혼 후 1~2년 이내 모두 부모가 되었다. 이것은 자녀를 가진 부모만이 응답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혼전 임신이 12.4%였다. 혼전임신을 규정하기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혼 후 7.9개월 이내로 추정할 수 있었다. 빈도

분포를 봤을 때 8개월에 부모가 된 응답자가 7개월보다 2.5배 급속히 증가하였고 임신기간 266일에서 초산인 경우 2주 정도 빠르게 낳은 것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보였다.

부모됨의 기간은 가장 보편적인 “결혼 후 몇 개월 뒤에 아이를 낳았습니까?”라는 질문 또는 결혼한 연령과 첫아이 낳은 연령을 물어 알아보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본 연구에서는 첫아이 생일과 결혼을 한 날짜를 물어 계산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의 질문처럼 혼전임신에 대한 응답기피를 막을 수 있었다.

그림은 어머니들의 부모됨의 기간을 누적분포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부모됨의 기간의 누적분포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전국 규모로 응답자 1887명을 분석한 연구(1993)에서는 초혼년령과 첫아이출산과는 평균 21.6개월 기간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4.4개월이었다.

2.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우리나라 부모들의 부모역할만족도는 비교적 만족

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4점척도에서 아버지는 3.2, 어머니는 3.1로 「대체로 만족」의 수준이다. 어머니의 만족도는 149.9로 어머니만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현운강, 1994)와 매우 유사한 값(148.1)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성을 보여준다.

부모의性に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 = -3.93$ 로써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부모역할만족도 점수가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Chilman(1979)의 연구와는 일치

하지만, Hoffman(1978)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모의 성에 따른 부모됨의 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국내연구(원정선, 1990)와도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자녀관계는 본능적 요소가 있어 양육의 어려움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만족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이 증명되진 못한 셈이다.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은 어머니가

〈표 4〉 부모의 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내 용	n	Mean	S.D	t값
아버지	235	154.7	16.88	-3.93***
어머니	947	149.9	1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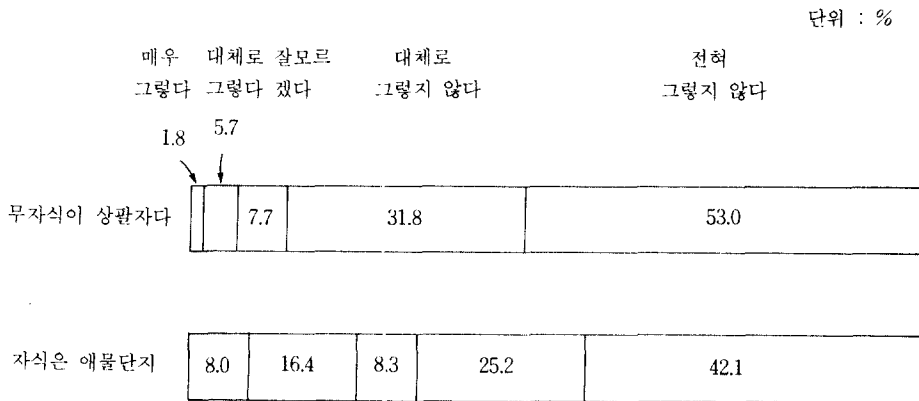
*** p<.001

주된 자녀양육의 책임자인 우리 나라에서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더욱 느꼈으리라 추측된다. 반면 아버지들은 양육의 보조자로서 역할수행 정도가 낮아 어려움을 덜 느끼므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하위영역의 하나인 「부모역할갈등」분항만 분석해 보았더니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9.82$ $p<.001$).

또한 역할만족도는 자녀양육에 대한 우리 속담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과 “자식은 애틀단지”라는 속담에 동의하는 비율이 크지 않았고, 특히 “무자식은 상팔자”에 거의 동의하지 않음으로서 결혼한 부부가 자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반영한다.

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 집단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는 두 집단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교육수준과 부모역할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다(Cleminshaw, 1989) 혹은 부적 상관이 있다(Chilman, 1979; Steffensmier, 1982)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개인의 높은 교육수준은 부모역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수도 반대로 매우 부정적인수도 있다(Goetting, 1986)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밝히지 못했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부모로서의 역할보다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선호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지닌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서 부모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종의 보상심리도 작용할 것이다. 교육이 부모역할에 긍정적인 경우는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와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를 독서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그림 2〉 속담에 대한 응답

3. 부·모 관련변수와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의 일반적 배경변수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 분석에서는 기능·서비스직, 자영업, 회사원, 전문·관리직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관리직의 아버지집단이 다른 직종을 가진 아

〈표 5〉 부모 관련변수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변수 내용	아버지 집단 (N=235)			어머니 집단 (N=947)			전체 (N=1182)		
	n	Mean(SD)	F(t)값	n	Mean(SD)	F(t)값	n	Mean(SD)	F(t)값
교육 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19	148.3(17.9)	2.46	223	148.8(19.1)	2.29	242	148.8(19.0)	4.17*
	98	153.6(17.1)	(n.s)	514	150.0(16.0)	(n.s)	612	150.6(16.2)	
	118	156.7(16.1)		210	150.7(16.5)		328	152.9(16.6)	
직업 (아버지) 기능서비스직 자영업 회사원 전문관리직	23	153.6(15.0)	0.25						
	44	153.7(19.2)	(n.s)						
	82	154.6(17.5)							
	75	156.1(15.5)							
취업유무 (어머니) 비취업모 취업모				639	149.5(16.5)	-1.71			
				266	151.5(16.7)	(n.s)			
연령 29세이하 30-34세 35-39세 40세이상	3	153.0(6.1)	2.21	45	149.6(18.6)	0.65	48	149.8(18.0)	0.18
	28	159.7(16.3)	(n.s)	361	150.5(16.4)	(n.s)	389	151.2(16.5)	(n.s)
	123	155.9(16.5)		452	149.2(17.0)		575	150.6(17.1)	
	81	151.3(17.2)		89	151.3(17.5)		170	151.3(17.3)	

n.s = not significant * p<.05 *** p<.001

버지집단의 만족도점수보다 높았다. 그러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부모가 되는 연령과 만족도와의 분석에서 전혀 차이를 밝히지 못했다. Goetting(1986)은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일관성있게 만족도가 커가는 것을 밝히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같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나라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부모의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역할만족도의 차이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부모의 연령과 만족 간에는 상관이 없다는 원정선(1990)연구보고와 일치한다.

4. 어머니의 취업, 부모됨과 만족도

취업모의 경우 부모가 된 연령은 26.0세이고 비취업모의 경우는 25.8세였으며 결혼 후 첫아이를 낳기까지의 기간은 각각 15.2개월, 13.9개월 이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취업이라는 조건은 늦게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과 부모역할만족도는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현온강(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취업자체가 만족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이 중요하여 원하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는 부모역할에 더 만족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대로 가정형편상 취업할 수 밖에 없어 취업한 어머니가 느끼는 부모역할만족도는 매우 낮을 수도 있으며 자녀양육의 만족에 대한 기대수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취업이라는 조건은 첫아이를 갖는 시기를 늦추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녀를 두는 것은 부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점차 길어질 것으로 본다. 외국 의 경우 임신유예(Delayed parenthood)는 70년대 보다 80년대에 급격히 길어지며 30세 이상의 어머니들의 결혼과 첫아이 출산과는 5년이 가장 보편적이었다(Hammer & Turner, 1990).

5. 자녀 관련변수와 부모역할만족도

〈표 6〉은 자녀 관련변수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우선, 자녀수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녀수가 1명인 집단, 2명인 집단, 3명이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집단 모두에게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적어 분석할 수 없었는데 자녀수와 부모만족도간에는 곡선관계 즉 4명까지는 내려가다가 그 이상이 되면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다(Hamner & Turner, 1990). 자녀가 많을수록 부모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지므로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으나 많은 자녀수를 원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높은 가치관으로 인해 역할 수행에 만족스럽게 여긴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전히 전통적 자녀가치가 남아있고, 남아선호사상이 잔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아들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 집단 모두에게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아들이 있는 집단이 없는

〈표 6〉 자녀 관련변수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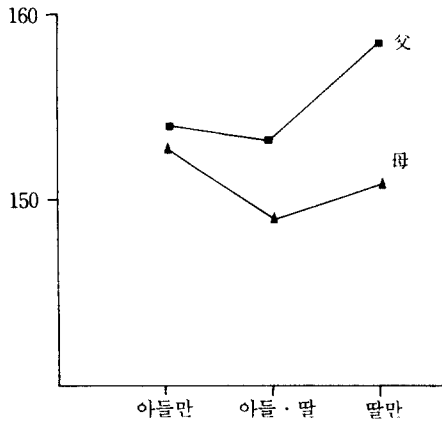
변 수 내 용	아버지 집단 (N=235)		어머니 집단 (N=947)		전 체 (N=1182)		
	n	Mean(SD) F(t)값	n	Mean(SD) F(t)값	n	Mean(SD) F(t)값	
자녀수	1 명	28 160.8(18.8) 4.43*	90 _A	152.8(15.2) 3.13*	118 _A	154.7(16.4)6.94***	
	2 명	167 _{AB}	154.9(15.9)	514 _{AB}	150.0(16.0)	807 _A	151.3(16.7)
	3명이상	25 _B	147.1(19.9)	210 _B	150.7(16.5)	163 _B	147.4(16.4)
아들	아들있는집단	167	153.6(17.2) -1.75	668	150.1(17.0) -0.27	835	150.8(17.1) -1.07
유무	아들없는집단	53	158.3(16.1) (n.s)	299	150.4(15.1) (n.s)	253	152.1(15.6) (n.s)
자녀 외동아들	외 동 딸	16	155.7(19.2) 2.57	54	150.8(16.3) 3.00*	70	151.9(18.0) 5.33**
	同性의 자녀	12	167.7(16.6) (n.s)	36	155.9(12.8)	48	158.9(14.6)
	異性の 자녀	95	154.3(15.7)	318	151.3(16.0)	413	152.0(16.0)
		97	153.5(17.6)	460	148.8(17.1)	557	149.7(17.3)
첫자녀 의연령	유치원이하	29	160.6(14.1)5.45**	125	151.6(18.0) 1.09	154	153.3(17.6) 1.92
	국민학교	145	155.8(15.9)	581	149.3(17.1) (n.s)	726	150.6(17.1) (n.s)
	중고등학교	61	149.3(18.7)	241	150.4(15.7)	302	150.2(16.3)

n.s = not significant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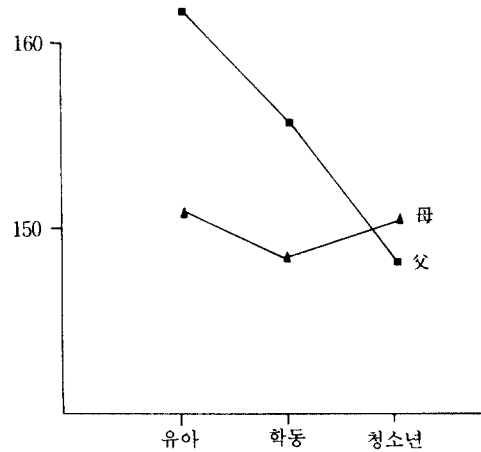
〈표 7〉 자녀의 성별구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변 수 내 용	아버지 집단 (N=220)		어머니 집단 (N=868)		전 체 (N=1088)	
	n	Mean(SD) F(t)값	n	Mean(SD) F(t)값	n	Mean(SD) F(t)값
아들만 있는 경우	70	153.9(16.8) 1.53	208	152.9(16.4) 4.27*	278	153.1(16.5) 4.52*
아들·딸의 경우	97	153.5(17.6) (n.s)	460	148.8(17.1)	557	149.7(17.3)
딸만 있는 경우	53	158.3(16.1)	200	150.4(15.1)	253	152.1(15.6)

* P<.05



<그림 3. 자녀구성에 따른 만족도>



<그림 4. 첫자녀 연령에 따른 만족도>

집단보다 만족도 점수가 높으리라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부모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자녀의 성별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딸만 있는 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통념과 반대의 결과이다. 이것은 딸이 태어난 순간에는 서운하다고 하더라도 기르는 재미는 딸에게서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반영한다. 수집된 자료를 외동아들만 있는 집단, 외동 딸만 있는 집단, 同性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 異性の 자녀로 구성된 집단간의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외동 딸이 있는 집단의 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와 일관성 있게 딸을 가진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의 구성에 따른 의외의 결과로 인해 또 다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번에는 아들만 있는 경우와 딸만 있는 경우, 아들·딸이 있는 3집단으로 분석하였다니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으로 보아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한 사회라 하더라도 부모역할의 만족도는 딸에게서 더 많이 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첫자녀의 연령, 즉, 부모의 양육경험년수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첫자

녀가 유치원이하인 집단, 국민학생인 집단, 중고등학교 집단, 대학교이상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집단에 있어서는 자녀의 양육경험년수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아버지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첫자녀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아버지의 역할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품안의 자식」이라는 속설이 이 연구에서 증명된 셈이다.

V. 결 론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우리 나라의 부부는 결혼하고 난 뒤 거의 부모로서의 준비도 없이 임신하여 출산한다. 결혼은 개인에게 커다란 전환이다. 전환된 생활에 적응할 틈도 없이 또 다른 부모기로의 전환을 맞는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이다. 우리 나라 부부들은 자녀로 인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고 자녀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리라는 추상적 만족이 이 기간을 단축시키리라 여겨진다. 부부의 2인 관계에서 부부와 자녀의 3인 관계로 가족체계의 변화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너무 짧은 시간에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교육이 필

요하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느끼는 부모역할만족도가 어머니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역할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부모역할관이 보수적이면서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지식과 기능이 부족한 아버지들이 느끼는 만족이란 양육에 대한 참여 없는 막연한 만족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아버지도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핵가족제도가 보편적인 가족형태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당연하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교육시켜야 한다. 이러한 것은 초기에 공식적인 학교교육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세 번째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역할만족도가 높으며 지역별로는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없다. 이것은 문화 사회적 배경이나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자녀관”이나 “부모역할관”이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과중한 농업노동 부담까지 안고 있으며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 농촌의 부모들도 부모 역할에 대한 불만족이 더 높지 않는 것은 이러한 가치관의 반영으로 보인다.

네 번째 어머니의 취업은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이 없다. 이는 자녀양육에서 취업이라는 조건이 시간적으로 많은 제한을 갖고 있으므로 부모역할에 불만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나 취업자체가 만족에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섯 번째 자녀수가 적을수록, 딸만 있는 가정의 부모가 부모역할만족도는 높다. 전통적인 가족관을 지닌 우리 나라 부모들로서 자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한 자녀를 두고서 부모로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주부의 직장생활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딸만 있는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다소 의외이긴 하나 딸을 키우는 데는 상호작용의 질이나 양이 아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결론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할 수 있다. 전체의 부모역할만족이 실제로 자녀의

발달과 연계성이 있는가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다. 부모가 지니고 있는 만족의 정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결정지어질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하여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자신감뿐만 아니라 인성의 발달, 학업성취도 까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체적으로 결혼만족도와 같은 U곡선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유아기 아동을 가진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점차 낮아진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규명되어졌으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후 부터 결혼 후까지의 만족도의 변화도도 종단적인 연구로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강희경(199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경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2) 고선주·옥선화(1993).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 가정학회지, 31(2), 55-68.
- 3) 원정선(1990). 부모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4) 이혜란(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5) 현운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6) 현운강·조복희(1994). 부모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7) 한국여성개발원(1993). 한국여성의 취업경력.
- 8) Bigner, J.J.(1985).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 Macmillan
- 9) Chilman, C.S.(1980). Parent satisfactions, concerns, and goals for their children, *Family Relations*, 29, 339-345.
- 10) Cleminshaws, H.K., & Guidubaldi, J.(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

- Guidubaldi parent-satisfaction scale. In M.J. Fine (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Contemporary Perspectives* (pp.257-277). San Diego : Academic Hall.
- 11) Goetting, A.(1986). Parental satisfaction —A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Family Issues*, 7(1), 83-109.
- 12) Hamner, T.J. & Turner, P.T.(1990).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2nd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13) Hoffman, L.W., & Manis, J.D.(1979). The valu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Fert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583-596.
- 14) Lowenthal, M.F. et al.(1975). Four stages of life. San Francisco : Josey-Bass.
- 15) Ragozin, A.S., Basham, R.B., Crnic, K.A., Greenberg, M.T., & Robinson, N.M.(1982). Effect of maternal age on parenting rol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627-634.
- 16) Steffensmeir, R.H.(1982). A role model of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319-334.